

# 생산성적의 시작 - 후보돈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돈가가 바닥이다. 우려했던 예상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내년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더군다나 생산 성적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농장들은 많은 숫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특히 질병 문제가 심각한 농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벌써부터 대략 난감이다. 많은 농장들이 다가오는 사태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많은 농장들을 다니고, 많은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번식과 생산에 있어서 큰 고민거리중의 하나가 후보돈 관리이다. 오늘은 필자가 강조하는 후보돈 관리의 몇 가지 포인트를 적어본다.

## 후보돈 위생관리가 되어야 농장의 질병 관리가 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후보돈 공급 농장들이 모두 같은 위생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종돈장별로 특정 질병이 문제가 되는 곳도 많다는 이야기이다. 어떤 종돈장은 PRRS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종돈장은 AR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반 농장에서 그런 세세한 위생 조건들을 다 파악할 수야 없지만, 자신이 도입하는 종돈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농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농장의 질병 문제가 감소한다. 자돈사에서 폐사가 발생한다고 자돈사의 관리만 신경쓰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는 모돈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는 후보돈의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필자는 특히 흉막폐렴과 PRRS가 후보돈에서 어떠한지를 유심히 살핀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자돈사의 폐사중 상당수가 PRRS와 연계되고 있고, 비육사의 폐사는 흉막 폐렴과 대부분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많은 임상 수의사들이 PRRS가 음성인 후보돈을 농장에 추천한다. 실제로 PRRS음성인 후보돈을 공급받는 농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의 농장도 올해 컨설팅을 수주받아 질병검사를 하였을 때, 후보돈의 PRRS 문제가 있었다. 질병 양상을 추적하여 보니, 후보돈에서 PRRS가 먼저 문제가 되고 이후 자돈사의 폐사가 증가하였다. 앞으로 후보돈의 위생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12

12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김 경 진 원장  
돼지와 건강 수의그룹

자돈사에서 폐사가 발생한다고 자돈사의 관리만 신경쓰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는 모돈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는 후보돈의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슈가 될 것이다. 또한 고무적인 현상은 종돈장들도 점차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PRRS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질병 안정화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격리 순치 돈사 : 앞으로는 필수가 될 것이다.**

또한 격리 순치사의 설치와 운용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가 질병 전파원으로 지목하는 1순위가 다른 농장의 돼지이다. 후보돈도 당연히 이 범주 안에 들어가며, 격리 순치를 실시치 않으면, 다른 농장(즉 종돈장)의 질병이 우리 농장에 전입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컨설팅 그룹에서 담당하는 농장들은 격리와 순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대부분의 농장들에서 격리 순치를 거치는 돼지들이 위생적으로 안정화 되고 있으며, 이는 번식 성적의 향상에 도 큰 영향을 준다.

<표 1> A농장의 도입 후보돈에서 PRRS 역가

이 농장은 최근까지 후보돈 관리 미숙으로 농장에서 자돈기의 PRRS 문제가 심하였다. 이런 농장들은 후보돈의 공급처를 바꾸던지, 격리 순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후보돈	후보돈	육성돈	후보돈	후보돈
PRRS	0.24	2.59	1.36	0.30	2.07

**발정의 유도? 발정의 점검?**

많은 농장에서 적절한 일령(보통 150일령 전후

가 적절한 도입일령이다)을 마다하고 크기가 큰 후보돈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발정이 오기만 하면 바로 교배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250일령이 넘어도 발정이 안 오면, 호르몬제를 처치하던가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제로 웅돈의 접촉을 안 시키고 자연적으로 발정이 오기를 기다리면 약 20% 정도의 돼지들은 발정이 안 온다. 이 돼지들은 어떤 방법으로 교배를 시키건 항상 성적을 잡아 먹는다. 발정의 점검과 유도에 있어서 웅돈의 사용은 이미 30년도 더 된 자료들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하였다. 발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웅돈을 이용해서 유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진 1〉의 농장도 본인이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진 1〉 후보돈이 전입되면 웅돈과 접촉시켜 발정을 점검토록 한다. 이것이 계획적인 교배 계획의 시작이다. 초발정이 오면 다음 발정일을 사진과 같이 표시하셔서, 언제 교배시킬 것인지를 확인한다. 이 농장은 초발정일을 확인 후에 언제 교배시킬 것인지를 알기 위해 다음 발정 예정일들을 미리 적어 놓았다.

항상 후보돈은 발정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유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농장마다 선호하는 체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체형을 정의하긴 어렵지만, 목표로 하는 체형을 정하고, 목표로 하는 체중을 정해서 이에 맞게 사료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농장인데, 후보돈 도입후 웅돈을 이용해서 발정을 유도하고 있다. 하루에 1회 약 15분씩 웅돈을 접촉 시키는데, 대부분 도입 3주 이내에 90%의 후보돈이 발정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이를 현황판에 기록하고, 교배 시기를 결정한다. 특히 그룹 관리를 시행하는 농장들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는 후보돈들이 도태될 이유가 없다. 항상 후보돈은 발정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유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계획교배? 그냥 일령이 되면 교배 시킬 것인가?

대개 발정 점검이 안되는 농장들이 또한 대충 후보돈의 크기를 보아서 교배 시킨다. 실제로는 후보돈이 늦게 교배될수록(240일령 이후), 모돈으로서의 연산성도 높아지고, 관리사에 유리하다. 실제로 220일령 이전에 시키는 종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 고등학생이 임신하는 것과 같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초발정 점검이 이루어지면, 이에 맞추어서 계획적인 교배가 가능해지는데, 이 때 반드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체형관리이다.

즉 적절한 체형에 교배가 이루어지도록 사료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포유돈 사료로 급 이후 후보돈이 뚱뚱해져서 발정이 안 와서 고민하는 농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체형 관리

에 실패한 농장이다. 일단 발정이 확인되면 언제 교배를 시킬 것인지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서 사료를 급이해야 한다. 너무 후보돈이 과비이면 종부시 무발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너무 마른 상태로 교배되면 임신기에 사료를 많이 먹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농장마다 선호하는 체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체형을 정의하긴 어렵지만, 목표로 하는 체형을 정하고, 목표로 하는 체중을 정해서 이에 맞게 사료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후보돈 시기에 급이해야 하는 사료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는다. 어떤 농장은 후보돈 전용 사료를, 어떤 농장은 포유돈 사료를, 어떤 농장은 임신돈 사료를 급이한다. 그런데 사료의 포물러가 큰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사료의 종류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 중요한 것들은 후보돈의 사양관리 항목들이다.

### 마치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농장의 성적은 후보돈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정작 실천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성적만 안정되면 돈가는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후보돈의 관리부터 농장의 생산성은 시작이다. **양돈**